

교차로

소식지 '삶과 생명...' 창간

법장 생령 나눔 실천회 이사장님 은 최근 소식지 <삶과 생명나누기>를 창간했다. 이 소식지는 4x6판 32면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범어사 승가대 졸업식

성오 부산 범어사 주지는 11일 보제루에서 제28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에 앞서 범어사는 6일 순천 송광사에서 방생법회를 가졌다.

극락전 개원기념 천도제

영담 석왕사주지는 1월 25일 경내 육화전에서 장례의례종합법당 <왕생극락전> 개원과 백팔장승조각 창립 1백일 기념 합

동천도제를 봉행했다.

교도대서 박사학위 받아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스님은 13일 일본 교토 불교대학에서 '회엄경사상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교TV 종합조정실 국장에

남현 한일 문재연구소장 스님은 불교TV에서 경영기획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조정실 국장에 5일 임명됐다.

나리사랑 금오기 동창

심산 통도사 부산포교원장스님은 1~3일 포교원 법당에서 나리사랑 금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백여 불

자들이 동참, 1천2백2십돈종이 접수했다.

새해맞이 촛불제·인등불사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스님은 1~3일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마음을 밝히는 새해맞이 촛불제 및 인등불사를 봉행했다.

구정발전 기여 표창장 받아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스님은 1월 22일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 지원 공로로 권문용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유럽지역 고대식물 조사

시연 대구 여래한방병원장스님은 1월 20일~22일 5일 그리스 터키를 가리아 독일 등을 방문하여 고대자연열매와 식초화살자료를 열람했다. 스님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한방과의 접목을 시도할 계획이다.

美 발전기금 연차회 참석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동국대 미주 동서지역 총동창회(회장 이태근) 초청으로 동창회 총회 및 동국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연차회에 참석키 위해 5일 미국으로 출국, 11일 귀국한다.

여주에 사찰음식 연구실

선재스님(전통사찰음식연구가)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사찰음식연구실을 개원했다. (0337)84-8597

대전서 한국화 작품전

정지희 공주 범성선원장스님은 13일까지 대전광역시민회관에서 한국화 작품전을 갖는다.

네팔 의료봉사 위해 출국

이근후 이화여대 교수는 '98년 팔-이화의료봉사단' 단장으로 봉사단원 13명과 함께 네팔 무의촌벽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기위

해 1월 31일 출국했다.

불학연구소 연구원에

김인수 전대한불교 편집국장 은 1일자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원에 위촉됐다.

티베트원회의 참석

최일산 티베트지원그룹 한국대표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 티베트지원그룹 아시아지역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키 위해 12일 출국한다.

귀국 플루트 독주회 가져

김학모씨(플루티스트)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 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플루트독주회를 가졌다.

수행·예술 겸비한 '傑僧'

단청장 해각스님 입적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일웅당(一翁堂) 해각(海覺)스님이 지난달 30일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3일 영축총림장으로 통도사 사명암에서 엄수됐다. 세수 94세 법랍 78세,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1905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스님은 1920년 이화옹스님의 문하에 들어 단청법을 접하며 단청장으로서의 수행이력을 시작했다. 스님께 단청기법을 사사한 화옹스님은 단청은 물론 법배에도 능했던 금강산 유점



사 대웅전, 귀주사 대웅전, 통도사 천왕문과 사천왕, 봉은사 천왕문 등 스님의 체취가 배인 유작단청들은 선종마저 감도는 단아함으로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스님은 오신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평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만큼 계율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학 김익홍(불교미술가)씨는 "스님은 여자의 빨래가 걸려 있는 빨래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일화를 들려 스님의 지계정진을 설명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중에 어쩌다 술병새를 쫓기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나오"란 황해도 사투리 한마디로 붓을 빼앗고 집으로 보내 버렸다. 계율못지 않게 스님은 평생 보시하는 삶도 지켰다. 일을 해서 돈이 모아지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절의 단청을 무상으로 해주기도 했고 퇴락한 사찰의 중건에 가진것을 모두 내놓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학술상 제정 정토신앙 알릴터"

한국정토학회장 재선 정태혁 교수

"한국정토학회는 정토불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대중의 수행을 진작시키기 위해 학회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3일 한국정토학회 회장으로 재선출된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지난 88년 창립된 한국정토학회는 당시 정토학자들이 부족해 정상적인 학회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정회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토불교를 연구해 학위를 받은 불교학자들이 3백여명에 이른다"며 "정토학술상을 만들어 정토불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할 것"이라며 계획을 설명했다. 또 "정토학회는 타력신앙을 강조한 정토불교를 연구하는 학회인 만큼 연구회원 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을 신행회원으로 받아들여 불자들의 신행도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에 홍윤식(동국대)교수, 부회장 강동권(동아대)교수, 감사 세민(수안사주지)스님 총무 보광(동국대교수)스님이 임원을 맡았다. <옥>

"아버지 모델...민족화합 염원 담아"

가극 '눈물의 여왕' 원작자 차길진 법사



법치산 토벌대장 차일혁과 백조가극단 단장 전옥, 차일혁이 사랑한 법치산 여인 신정하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 '눈물의 여왕'이 무대에 오른다. '눈물의 여왕'의 남주인공인 차일혁총경의 아들 차길진법사(51·후암정사)는 "예전에 TV

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주인공 최태희와 장하림은 모두 아버님을 모델로 한 겁니다. 18~9세 때에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절일을 도와 주며 머무르셨던 독실한 불자였어요. 토벌대에 있을 때 화염사 등을 태우라는 명령도 당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태우지 않으셨던 겁니다"라고 부친에 대해 회고했다.

강지연 기자



"봄이 왔으니 삶도 희망 있겠지..."

"남누리 북누리에 따뜻한 봄기운 드소서" IMF 한파 속에서도 봄소식은 들린다. 늘어나는 실직자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우리 사회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만발치서 들려오는 봄의 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읍지의 눈이 녹고 얼었던 개울이 풀리듯 우리 삶의 고통도 스르르 풀리길 염원하는 마음은 입춘을 맞아 더욱 간절하다. 4일 입춘을 맞아 절을 찾은 신도들은 가정의 행복과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어느새 보다 간절한 염원으로 때문에 '입춘대길'을 써 붙였다. 각 사찰과 교계의 신행단체들도 사무실 입구에 봄을 맞는 각오와 희망을 담아 '입춘대길'을 써 붙이고 환랑하기만 했던 지난 겨울을 떠나 보냈다. 조국통일평화협회의 한 직원은 사무실 출입문에 '입춘대길 건안다경'이란 글을 써 붙이고 남누리와 북누리에 따뜻한 봄기운이 스미어 좋은일만 생기길 기원했다.

고영배 기자



"중국인 禪 수행 생활화에 감동"

중국 선불교 유적 답사한 지목스님



"선(禪)은 마음뿐 아니라 건강과 밀접한 수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수행이 국민보건체조 식으로 생활 곳곳에 널리 보급돼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서해를 건너 뱃길로 중국선불교 순례를 하고 귀국한 지목스님(송광사). 위해(威海)-영성(榮成)-척산(斥山) 등 산동반도 일대에서 수행과 함께 연대(煙臺)대학에서 어학코스를 수학했다. 스님은 "단기출가 3학일 형식의 수련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감동을 전하며 선수행관련 교재와 백화문경전 70여권을 확보했다. 스님은 앞으로 대해(大慧) 고봉(高峰) 육상(六相)스님의 행적지 조사와 관음 문수 지장 보현도량 등 4대성지를 답사연구할 계획이다. <위>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124차 깨달음의 장 모임 320,000원 △순수일 30,000원 △이애련 20,000원 △함정우 20,000원 △최광규 20,000원 △배영희 20,000원 △나선이 55,000원 △조유덕 30,000원 △이은선 20,000원 △김용우 40,000원 △성낙준 20,000원 △이은화 32,000원 △김경영 150,000원 △성일수 20,000원 △이성철 51,720원 △남영아 20,000원 △현병호 20,000원 외 △한 주 한 끼 굶기 1,298,500원 (2월4일 현재 총 905,466,220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연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올바르게 접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부와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 교육시간표

'98학년도 1학기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과정(법배작법)	요일·과정	습의(習儀)과정(불전의식)
월	18:00~19:30(학교강의실)	화	18:00~19:30(학교강의실)
금	18:00~19:30(학교강의실)	목	18:00~19:30(학교강의실)
- 응시자격
 - 종헌, 중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습의과정(불전의식)은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 2) 승적증명서 1통
 -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 4) 반명함판 사진 5매
- 접수일자 : 1998년 2월 20일까지(우편접수도 가능함)
- 면접일자 : 1998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개강일자 : 1998년 3월 2일(월)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중앙승가대학교 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학처 (☎921-3425)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1998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견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1.모집내용
 - (1) 1학년 상주권공 신입생 00명 (교수: 조인각 스님)
 - (2) 2학년 각배 편입생 00명 (교수: 한동희 스님)
 - (3) 3학년 영산 편입생 00명 (교수: 박승암 린스님)
 - (4) 연구과(안차비) 신입생 00명 (교수: 박승암 린스님)

* 이론 특별강의 (교수: 심만춘 스님)
 - 2.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3.전형방법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 증명사진 3매
 - 4.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 5.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02) 392-3007, 3008
 - 6.합격자 발표

1998년 3월 4일 발표 - 개별 통지
 - 7.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전수생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 393-3007,3008 FAX : 393-9450